“광주일보 통해 세상과 교감… 더욱 알찬 신문 되길”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옛 전남매일신문을 시작으로 광주일보와 50년간 인연을 맺어온 박관용·정은희씨 부부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스크랩북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0년 애독자 박관용·정은희씨 부부

“따뜻한 사람이야기 많이 전해줬으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반 백년이 되었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들 셋 중에 둘이 기사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는 가족만큼 정이든 신문죠.”

광주시 동구 궁동에 32년째 살고 있는 박관용(81)·정은희(78)씨 부부는 올해로 본보를 구독한 지 꼬박 50년이 됐다.

박씨 부부는 지난 1962년 목포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옛 전남매일신문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월 7만원의 사글셋방에 살면서도 그가 신문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이유는 20대 중반, 당시 목포에서 교육전문 주간지였던 교육주보(敎育週報)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식’의 중요성을 알았던 탓이었다.

1980년 12월 정부의 언론기관 통폐합시책에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이 통합된 뒤에도 인연은 계속됐다.

교육과학·아동·시청각교육 서적 유통사업을 하던 박씨는 신문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했고, 영업의 노하우를 쌓았다.

그가 10여년간 광주 예술의거리 번영회장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반 평생 친구에서 얻은 새로운 소식과 정보, 판단력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을 대하는 그의 일상은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석간 당시에는 오후의 주된 일과가 광주일보와의 만남이었고 조간으로 바뀌면서도 박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신문을 펼쳐들면서 시작됐다.

1면부터 시작해 사회·경제·오피니언면까지 전체 지면을 훑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자녀 결혼을 시키는지 또 안타까운 지인의 운명 소식도 지면에서 전해 듣는다.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주일보는 박씨의 ‘말 없는 대화’ 상대였다. 지역민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전해들었고, 잘못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비평에는 가슴이 시원해지기도 했다.

개인적인 인연도 남다르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큰아들 기환(51)씨의 우수한 연구 실적과, 음악을 전공한 막내 아들 진석(48)씨의 공연 소식이 게재된 것은 이들 부부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즐거움이었다. 박씨 부부가 아들들의 기사를 스크랩해놓고 이따금 펼쳐보는 재미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다.

박씨 부부는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확산한다지만 여전히 신문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정보의 질과 품격은 아직도 신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박씨는 환갑을 맞은 ‘50년 친구’의 새로운 분발을 촉구했다.

“신문은 고유한 색깔이 있어야 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메말라가는 세태에 따뜻한 사람이야기도 많이 전해주면 좋겠다. 창사 60년을 맞아 더욱 알차게 모습을 바꿔 앞으로 60년동안도 독자들의 변함없는 벗이 되어달라.”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참 〈8549〉 김종두

오토바이 훔친 10대 3명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9일 오토바이를 훔친 김모(17)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택가 앞에 세워진 조모(16)군의 125cc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만능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본 뒤 작동이 되면 타고 가는 수법으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 등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국 초중고 폭력실태 인터넷 공개

오늘 교과부 홈피

전국 1만1363개 초·중·고교의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는 20일부터, 학교별 홈페이지에서는 27일부터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학교가 학교폭력이 심한지 또는 덜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18일~2월20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559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한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되는 결과는 학교별 학생수, 응답학생 수, 피해경험 학생수 및 피해경험률,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 및 비율, 피해 장소별 비율 등이다. /연합뉴스

여성예비군 테러 대비 훈련 ‘2012 화랑훈련’ 기간인 19일 광주시 광산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테러 재난대비 훈련에서 광산구 여성예비군 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휴일 오전 돌풍 많은 비

주말과 휴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나들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새벽 남해안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비는 22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내륙 지역은 30~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8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비는 고기압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남서쪽 저기압이 접근함에 따라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부터 내몽골 고원 부근 강풍대에서 황사가 발생했지만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총인비리 업체간 입찰 담합까지

광주지검, 28명 기소… 수사 마무리

대기업들이 총인저감시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제출할 입찰금액을 짜맞춘 뒤 수억원의 뇌물로 심사위원들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가를 낮추는 출혈 경쟁을 하느니 명단이 공개된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검은 19일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반모(58)씨 등 광주시 기술직 공무원 8명, 박모(51) 전남대 교수 등 지역대학 교수 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대림산업 윤모(51) 상무 등 업체 관계자 15명 등 모두 28명을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업체의 돈으로 공짜여행을 다녀온 교수 4명에 대해서는 근무 대학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가성이 없거나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감사관실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교수·업체 관계자는 모두 30명을 넘어섰다.

광주시가 턴키 입찰을 위해 구성한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 중 절반 이상이 업체 로비에 휘둘린 셈이다. 또 실제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15명 중 7명이 뇌물을 받아챙겼다. 뇌물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길 가 주차된 자동차, 커피숍, 교수연구실 등에서 전달됐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을 당시 허위로 출장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입찰에 참가한 대림·금호·코오롱·현대 등 대기업이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4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말 만나 982억원의 공사비 중 92~94% 선에서 입찰예정가 4개를 산출, 추첨을 거쳐 광주시에 제출한 입찰가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의뢰했다.

검찰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 녹음 및 작성 경위, 연루자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속 해경 살해한 中 선장 징역 30년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이 19일 선고됐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5년과 벌금 1000~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조업 단속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 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밝혔다.

청씨는 작년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42)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연합뉴스

강운태 시장 “총인비리 죄송”

관련공무원 재판 결과따라 중징계

강운태 광주시장이 19일 총인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사과했다.

광주시는 입찰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또는 배제 징계 조치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찰비리에 적지않은 공직자들이 연루된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더 투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용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입찰행정, 제도개선 등 혁신의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연 퇴직 또는 파면·해임 등 징계하기로 했다.

기소된 대학교수 5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정참여를 배제하고 관련업체 4곳은 최장 2년까지 부정당업체로 전국 입찰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설계심의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일괄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까지 쫓아가 돈 내놔”

악덕사채업자 6명 검거

여성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광주지역 악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법정이자율인 연 39%을 초과한 연 89~382%였으며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 채무자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온 대부업자 6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대부업자 조모(25)씨는 보증채무 문제로 급한 돈이 필요했던 광주 한 중학교 여교사 A(35)씨에게 지난해 말 290만원을 빌려주고 70일 만에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340만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0만원을 더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다. 조씨는 채무자가 교사라는 점을 악용, 근무 중인 학교에 수차례 찾아가며 A씨를 압박했다.

대부업자 김모(29)씨 등 5명은 다방여종업원들에게 지난 2009년 5월께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율 2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

“청년이 대낮에 논다” 못마땅 주먹질

쌍나팔

○…20대 대학생이 평일 대낮에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주먹을 휘둘렀다가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노모(40)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유덕동 한 요금소 인근 고수부지에서 홍모(26)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이날 천변에서 주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가 홍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나는 일하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대낮에 일도 안 하고 한가롭게 놀고 있다”며 주먹질을 했다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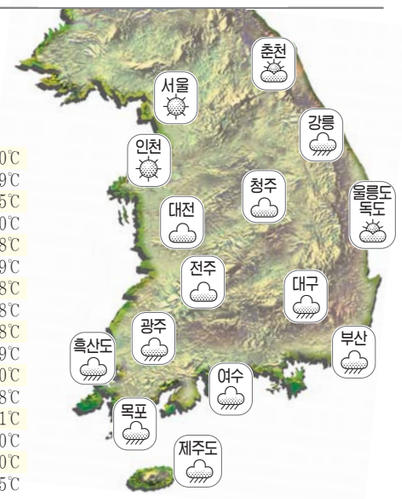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4분 / 해짐 19시 09분 — 달뜸 04시 59분 / 달짐 18시 20분

아침 안개 주의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비가 온 뒤 오전에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비	12/20℃
목 포	흐리고비	12/19℃
여 수	흐리고비	12/15℃
나 주	흐리고비	11/20℃
완 도	흐리고비	12/18℃
구 례	흐리고비	10/19℃
강 진	흐리고비	11/18℃
해 남	흐리고비	11/18℃
장 흥	흐리고비	11/18℃
순 천	흐리고비	10/19℃
영 광	흐리고비	11/20℃
진 도	흐리고비	11/18℃
전 주	흐림	11/21℃
군 산	흐림	11/20℃
남 원	흐리고비	9/20℃
흑산도	흐리고비	9/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동~남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1:38 13:46	06:52 19:01
여수	08:33 20:53	02:21 14: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 씨						
최저/최고	13/17	13/16	11/19	11/20	13/19	11/17